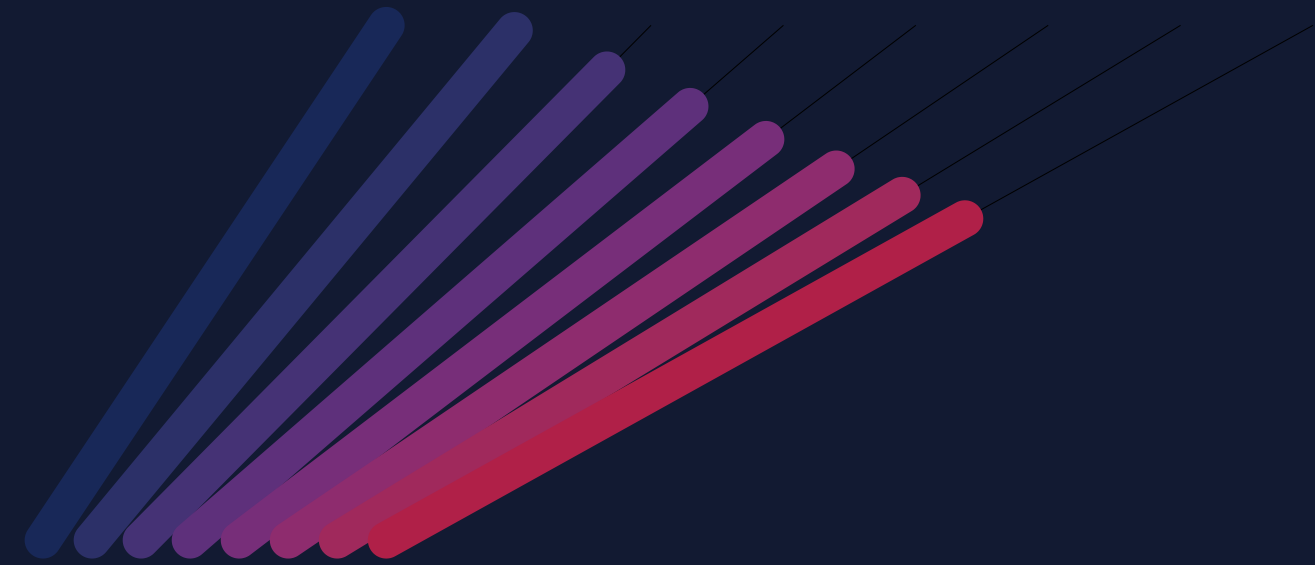




AX 디자인팩토리 부트캠프

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· 온라인 과정

AX란 무엇인가 — 자 동화와 무엇이 다른가

1강 · AX란 무엇인가 — 자동화와 무엇이 다른가

과목	차시	길이
AX 시대와 직무변화의 이해	1 / 3	25분

제작  디벨로켓

도입

오늘 정하는 것

이 편이 끝나면 한 문장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q 내 일 다섯 개 중 판단이 남는 것은 몇 개인가

이 기준 하나가 앞으로 두 편(1-2·1-3)을 읽는 도구가 됩니다.

도입

이 편이 끝나면 보는 것

「자동화인가 AX인가 판정표」 빈 틀 - 일 다섯 칸과 「판단이 남는가」 칸 (재구성)

자동화와 AX를 가르치는 한 가지

이론

6분

소재 없이 - 어디서든 쓰는 이야기

자동화는 사람을 빼고, AX는 판단을 사람에게 남긴 다.

정해진 규칙을 반복하면 자동화, AI가 초안을 내고 사람이 확인
하고 책임지면 AX입니다.

확인이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

자동문

확인이 필요 없다

- 사람이 다가오면 열린다
- 열린 것이 맞는 판단이었는지 확인할 일이 없다

자동 번역기

확인이 남는다

- 문장을 옮겨 준다
- 뜻이 맞는지는 사람이 읽고 판단한다

일의 단위가 바뀐다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하기 — 규칙만 있으면 사람이 매번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 |
| 2 | 시키고 확인하기 — AI가 초안을 내고, 맞는지 사람이 확인한다 |
| 3 | 책임지기 — 확인한 사람이 그 결과를 책임진다 |

내 일 다섯 개를 판정표로 가른다

시연

14분

판단이 남는 자리를 실제로 찾기

일 다섯 개를 적고, 막힌 응답을 나눠서 다시 넣는다

인물이 매일 하는 일 다섯 개 (영양 표시 확인·메뉴 원가 계산·상권 자료 정리·리포트 작성·이메일 답장)를 적음 → 전체를 통째로 붙여 넣자 응답이 끊김 → 다섯 개만 추려 다시 넣자 응답이 이어짐 (재구성)

AI 채팅창 재구성 · 확인일 2026-09-06

“다섯 다 자동화 가능”이라 는 답, 그리고 판정표로 다시 가르기

AI가 다섯 개 모두 "자동화가 가능합니다"라고 답함(재구성) → 판정표에 다섯 칸이 「판단이 남는가」로 다시 채워짐 - 원가 계산은 자동화, 영양 표시 확인은 AX(재구성)

데이터가 실제로 있다는 것, 그리고 “판단도 자동화할 수 있지?”의 함정



상가업소정보(80,704행×39열)와 인허가업소 정보(260,856행×17열) 파일 이름과 규모만 화면에 뜸(재구성) → AI에게 "판단도 자동화할 수 있지?"라고 묻자 "가능하다"고 단정하는 답 (재구성)

저장, 그리고 전공이 드러나는 곳

판정표가 저장된 파일 목록에 추가됨 (재구성) → 영양 표시 기준 문서가 화면에 뜨고 예외 조항 한 줄에 표시가 남음 (재구성)

판정표 한 장이 다음 두 편의 지도다

정리

자동화는 사람을 빼고, AX는 판단을 사람에게 남깁니다.

다음 차시

다음은 1-2 「어떤 일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생겼나 — 직무 단위로 본다」 입니다.

배웠는지 재는 질문 — 여러분의 일 다섯 개 중 판단이 남는 것은 몇 개입니까?

